

# 최대 격전지 '목포' 출구조사 지역 선정

## 4·9 총선 표밭

○정영식 통합민주당 후보와 박지원 후보(무소속)가 접전을 벌이면서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호남 정치의 1번지'인 목포 선거구가 전남지역 12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방송사 합동 출구조사 지역으로 선정됐다.

목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KBS와 MBC가 합동으로 9일 오전 6시부터 전체 투표소(60곳)에서 총선 출구조사를 하겠다고 신고했다는 것.

그동안 목포지역의 경우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도로 인해 출구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정영식 민주당 후보도 최근 후보단일화를 통해 세를 불리고 있어 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출구조사 지역으로 선정.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정 후보는 시내 곳곳에서 "공천을 통해 선탁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박지원 후보도 목포역 등을 돌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 달라"며 막판 부동층 확보에 총력.

## 황호순-김홍업-이윤석, 부동표 잡기 총력

○무안·신안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유세를 갖고 막판 표심잡기에 주력.

황호순 통합민주당 후보는 이날 신안 지도읍 장터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승기를 잡았으니 마지막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

김홍업 무소속 후보도 이날 이회호 여사가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지도읍 장터 등에서 부동층 표심 공략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며 지지를 당부.

이윤석 무소속 후보는 이날 지도읍 장터에서 유세를 벌인 뒤 차량을 이용해 무안군 일대를 돌며 막판 표밭다지기 분주했고 고기원 한나라당 후보도 신안 도초도와 압해도, 지도 등을 돌며 득표활동에 열중.

## 민노당 "상처받은 광주 자존심 되찾아야"

○민노당 광주지역 총선후보들은 8일 전남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강한 민노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

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통합민주당 100석보다 작은 민노당 20석이 더 강하고 매섭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무능과 오만으로 상처받은 광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노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

## "일 잘하는 후보" VS "힘 있는 지도자"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강기정 통합민주당 후보와 한화갑 후보는 8일 지역구 곳곳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거리 유세를 갖고 부동층 공략에 총력.

강 후보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막아내는 거대한 국민운동이어야 한다"면서 "광주의 희망을 열어갈 일 잘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

한 후보도 이날 서방시장과 경로당 등을 돌며 "소외된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력 있는 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절실하다"면서 "북구 지역에서 마지막 정치 인생을 쏟아부을 기회를 달라"고 역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통합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견제와 균형만이 서민경제를 살린다"며 절대적 지지를 당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7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새 정부와의 통로 역할을 할 여당 국회의원을 뽑아 광주 발전을 위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견제·균형 위해 광주의 힘 모아달라" "현안 산적... 힘 있는 여당에 한 표를"

## 민주당 광주 후보들

통합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광주의 힘과 애정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주선(동구), 조영택(서구갑), 김영진(서구을), 지병문(남구), 강기정(북구갑), 김재균(북구을), 김동철(광산갑), 이용섭(광산을) 후보 등 민주당 후보 8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서울에서는 대통령부터

장·차관,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까지 모두가 한나라당 선거운동에 올인하는 등 수도권에서 '견제 야당'의 싹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단체장, 지방의회까지 한나라당 일색인데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하면 일당 독주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나라 전남 후보들

한나라당 전남도당과 전남지역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전남도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호소문에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만 막대기만 꽂아 당선되는 호남 땅에서 지역 발전을 강조했던 그들이 얼마나 지역을 발전시켰느냐"면서 민주당을 겨냥

했다.

후보들은 이어 "언제까지 참을 것이냐, 그들에게 또 4년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을 당선시켜야 지역의 여론을 중앙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약 이변에도 한나라당이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전패한다면 지역발전은 그만큼 더뎠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투표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4년 결정할 소중한 한표를"

## ■각당 대표, 대국민 호소

4·9 총선을 하루 앞둔 8일 주요 정당 대표들은 기자회견과 유세 등을 통해 자 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통합민주당은 "일당 독주 견제", 한나라당은 "안정론", 민노당당은 "야당다"를 내세우며 막판 부동층을 공략했다.

◇민주당=손학규 공동대표는 이날 8일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부자", "1% 내각" 인사를 강행하면서 불안하고 서툰 국정운영과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했던 지난 3개월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옐로카드 정도의 경고는 해주셔야 한다"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는 보수세력을 분열시켜 놓고 지역감정을 이용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등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선거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경남 창원시 민노당 경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서민정치를 실현할 민노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천영세 대표는 "100석보다 강한 민노당의 20석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잡는 '균형 의식'이자 '필요 의식'이라며 민노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 하타인 설치, 영여몰입교육,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가속화해 서민경제를 파탄나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이회창 총재는 이날 아산 현충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만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또다시 무

## 민주당 지난 3개월 분명한 평가 있어야

## 한나라 과반+α, 변화 위해 힘 실어달라

## 민노당 20석은 정치중심 잡는 '균형 의식'

## 선진당 여 독주 견제 교섭단체 만들어달라

## 한국당 섬김의 정치, 국회에서 구현하겠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5년 TK(대구·경북) 필박론을 이야기 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는 대주주가 된 TK가 15년은 적어도 더 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민약 한나라당이 200석을 넘어 개헌선을 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집권연장의 길로 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강재섭 대표는 이날 대전 지원 유세에서 "과반수를 넘게 해줘야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 놓은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실용'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겨우 한 달 조금 넘는 정권을 '견제하고 중립심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정과탄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번 총선을 통해 마무리하고 진정한 정권교체의 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또 "지금 자유선진당 총재

능한 좌파정권이 넘보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며 "선진당이 반드시 교섭단체가 돼 소중하게 얻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되살리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총재는 또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가 품격있는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문국현 대표는 이날 대전 지원 유세에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이 국회를 바꾸고, 한국정치를 국민 여러분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겠다"며 "대왕 세종이 행했던 섬김의 정치를 국회에서 구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조한국당은 한국정치에 대한 혐오, 무관심으로 얼어붙은 국민 마음의 문을 열려고 했다"며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정치권에 대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업료는 0원! 입학비 0원! (당시 학비 10% 할인) (당시 학비 10% 할인)

# 국내영교육학

개강 5월 2일

교사 임용시험 불거지 않으면서도 국내영교육학이 가장 쉽게 풀이드릴 것입니다.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실용교육, 실용영어, 실용수학, 실용과학, 실용음악, 실용미술, 실용체육, 실용정보, 실용영어, 실용수학, 실용과학, 실용음악, 실용미술, 실용체육, 실용정보

국내영고시학원 ☎ 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시무실 ☎ 361-8111  
복구실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서울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 (전국 1위)

개강 매월 초 합격

국비무료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시무실 ☎ 361-8111  
복구실 ☎ 529-8111

= 합격률 전국 1위 =

#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4월 첫진도 시작반

제작과 수강 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대적 학습시설  
정답학습보조 시스템  
과학적 평가시스템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고시 컨나맨)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